

“집체화가 주 이룬 북한 미술전은 세계 최초”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기획 문범강 큐레이터

광주가 지니는 예술적 포용력이 전시 성사 이끌어 2011년부터 9차례 평양 현지 취재 북한 미술 연구 이념의 테두리에 갇히면 북한 미술 제대로 못 봐

오는 9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북한 미술전을 기획한 문범강 큐레이터(조지타운대 회화과 교수)는 기자가 보낸 이메일 질문지에 장문의 답장을 보내왔다.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북한전시에 대한 기대감과 소회, 전시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빠히 담긴 글이었다. 한반도에 태어난 것, 평양 방문이 가능한 미국 시민이라는 것, 화가였기에 북한 미술을 좀 더 빠른 시간에 분석할 수 있던 점 등을 들려 북한 미술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는 말하는 문 교수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비엔날레에서 만날 대규모 북한미술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치미술 등이 주를 이루는 전 세계 비엔날레 사례를 볼 때 북한미술이 주요 전시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예외적입니다. 지극히 한국적 상황하기에 실현가능한 발상이지만 무엇보다 광주가 지니는 예술적 포용력이 가장 큰 핵심적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몇가지 측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조선화로 창작된 대형 집체화가 주전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북한미술전은 집체화가 한점이라도 포함되면 대단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4~5m 대형 집체화가 여러점 전시되고 대부분 최초로 공개되는 평양 만수대장작사의 작품입니다. 집체화가 주를 이룬 북한미술전은 세계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미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장, 시각의 장구를 제공하는 전시입니다. ‘북한미술은 전부 선전화’라는 명제는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융통성의 결핍으로 인해 스스로 사 고체계의 예측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제 속에 갇힌 미술이라도 인간이 창작하는 예술마당은 자로 잰듯 획일적으로 그을 수 없는, 다른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여점이 전시되는데 작품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전체 작품이 다 ‘선전화’로 구성됩니다. 선전화는 북한미술이 자랑하는 대표적 표현매체로 한국에서는 ‘한국화’, 중국에서는 ‘중국화’라 부르는 동양화입니다. 북한미술의 매력은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이 시각에도 창작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미술’의 유일한 핵심 에너지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성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전화는 드문

케이스로 북한은 동양화를 하고 있는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하고도 깊은 사실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조선화 매력에 드러날 걸로 기대합니다. 내용면에서는 인물 위주의 주제화, 특히 집체작이 주류를 이루며 산수화의 개성적 발전이 소개됩니다. 또 북한에서 그 맥이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선화화를 발견해 전시합니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연구에 매진하셨는데 북한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화가와 교수가 제 직업입니다. 창작하고 작품전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철저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왜 창작시간을 뒤로 밀쳐 두고 북한미술을 연구하게 되었을까 저도 의아한데 “아, 이게 다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 탄생해서, 그 땅에서 교육을 받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미국대학 미술과 교수가 된 후, 화가로 활동을 펼쳐오던 2010년 북한미술에 꽂혔습니다. 처음 본 선전화는 이념이 들쭉 들어간 ‘주제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세계 받고 성장했기에 순간 흠뻑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더 놀란 건 작품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전화, 그러니까 맥, 몰감으로 탁종이 위에 그린 동양화로 이런 사실적이면서 도시적인 균중화를 본 것은 그 조선화가 처음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북한화, 특히 조선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평양에서는 어떻게 작가들과 접촉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셨나요.

▲2011년 2016년까지 총 9차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취재를 제일 우선으로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그림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만수대장작사, 중앙미술창작사, 조선미술박물관, 평양미술대학 등을 방문해 인터뷰하고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람하고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제 연구에 대해서 평양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여러 해를 오직 조선화에만 몰두하는 제 자세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평양 미술계에선 “아, 그 조선화 연구가” 할 정도로 저의 집념이 새겨져 있지요. 창작실을 방문해 작업하는 광경을 보고 생생한 인터뷰를 취재할 수 있어 제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수대장작사를 방문하신 느낌과 집체화의 특징을 설명해주시다면.

▲다른 창작사에서도 집체화를 창작하지만 품격이나 스케일 면에서 만수대장작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집체화는 여러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공동제작하는 작품

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서거, 역사적인 사건의 재현 등이 주제로 다루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역사화입니다. 만수대장작사에서 집체작을 제작하는 과정을 잠깐 봤는데 6명의 작가가 작업하더군요. 유희에서는 덧칠을 할 수 있지만 수묵담채 조선화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붓질의 실수는 작품 전체를 망치기에 철저한 사전 계산과 작업 완수 능력이 있는 작가만이 인물화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주창작가가 작품 전체의 밸런스를 잡고 구도의 거리감을 조절하는 방향 제시를 하며 작업합니다.

—생소한 북한미술에 관람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북한미술은 이념의 테두리화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척도만 바라보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전시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미술은 선전화’라는 통념을 부정하지 않은 채 선전화의 속성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무엇을 발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명제를 제기해 답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봅니다. 2016년 워싱턴 전시처럼 외국에서 열리는 북한미술전시도 그들 북한미술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하고 즐기다보니 얻는 게 많습니다. 이번 북한전도 편견 없는 시각으로, 새로운 미술양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미술과 관련한 책을 준비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조선화를 심층분석한 ‘평양미술-조선화 너 누구냐’가 3월 출간됩니다.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에 북한 미술에 대한 나머지 주제를 모아 ‘평양미술-원류’로 펴낼 생각입니다. 내용은 중3 정도부터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쉽고 심층분석이 공존하는 에세이식의 글입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친일파 이영개가 모은 고미술품 109점 50년만에 일본서 돌아왔다



추사 김정희 ‘석란도’

일제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하다 196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간 사업가 이영개(1906~?)가 모은 고미술품 109점이 약 50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왔다.

기업가인 이재환 차이나워이트레블 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8월 말에 유물들을 국내에 들여왔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구매액은 밝히기 곤란하다”며 “아직 전시 계획은 없고, 학자들이 원한다면 도판이나 실물을 보여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이영개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문화재들은 이영개가 일본으로 가져간 뒤 일본의 제과회사에 판매됐다. 이 회사의 사장은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했고, 이후 시장의 자녀들이 상속 받았다. 일제에 군용기 부품을 공급하고 친일단체 간부를 지낸 이영개는 1971년

일본에서 ‘조선고서화총람’이라는 책을 발간할 정도로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돌아온 이영개 컬렉션은 그가 수집했던 유물 중 일부로 추정된다.

이 대표가 구매한 이영개 컬렉션은 글씨와 그림 105점, 당초를 새긴 편액 4점으로 구성됐다. 제작 시기는 대부분 조선시대다.

회화는 영월군수를 지낸 문인화가 신세림(1521~1583)이 그린 ‘기려도교도’ (騎驪渡橋圖), 조선 중기 화가인 이경(1581~?)의 ‘수하쌍마도’ (樹下雙馬圖), 고려 후기나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지미인도’ (蓮池美人圖), 추사 김정희(1786~1856)의 목란화 가운데 가장 큰 ‘석란도’ 등이 포함됐다.

또 석봉 한호(1543~1605)가 선조 22년(1589) 이태백의 시 ‘망려산폭포’를 행서체로 쓴 세로 61.5cm, 가로 6.9m 크기의 병풍식 서첩도 있다.

—연합뉴스

담양문화회관 30일 영화 ‘꾼’ 무료상영



배우 현빈, 유지태, 배성우, 나나, 박성웅 등이 출연한 영화 ‘꾼’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30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장영민 감독의 영화 ‘꾼’은 회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봉친 사기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한다. 타짜가 타짜를 알아보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잡는 게 제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을 벗어나는 꾀들의 세계를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군 관계자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1월, 역발상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전개되는 ‘꾼’ 영화를 감상하며 기분 좋게 한해를 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현빈은 담양 메타영성테마파크에서 촬영한 영화 ‘여린’을 통해, 배우 유지태는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촬영한 KBS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영화 ‘가을로’ 등에 출연하며 추억이 담긴 여행지 ‘담양’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